

시온 주보

제2506호
2024년 6월 9일(나해)

연중 제10주일

아담과 하와

티치아노 (Tiziano Vecellio, 1485/90-1579)
1550년 경, 캔버스에 유채, 240x186cm
프라도 미술관, 스페인 마드리드



입당송 | 시편 27(26),1-2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리라.

제1독서 | 창세 3,9-15

화답송 | 시편 130(129),1-2,3-4,5와 6ㄴㄷ-7ㄴ,7ㄴㄷ-8(◎ 7ㄴㄷ)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

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2독서 | 2코린 4,13-5,1

복음환호송 | 요한 12,31-32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복음 | 마르 3,20-35

영성체송 | 시편 18(17),3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할 일 없는 사목자



이계철 라파엘 신부 | 주교좌 기도 사제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복음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으셨을텐데,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의 온갖 모략은 물론, 친척들의 물이해까지 겹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에 어떻게 모두 대처하실 수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기우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모든 것에서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하느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는 예전에 원목 사제로 지냈었습니다. 원목 사제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할 일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목자가 병실 방문을 다닐 때, 누구라도 “신부님!” 하고 부르면, 멈추어서 충분히 들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바쁜 일이 좀 있어요...” 하고 청을 거절하는 그 순간이, 환자와 나눌 마지막 소중한 대화를 저버리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분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외면하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목자는 가장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원목자만이 아닌, 바빠 보이는 오늘날의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제에게 도움을 청하는 많은 교우들의 첫마디가 “신부님 바쁘실텐데...”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 안 바쁘세요.” 하고 말합니다. 사실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실

새도, 음식을 드실 여유조차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어느 한 가지도 소홀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하나도 안하신 일이 없습니다. 가로막는 돌을 치우시고 벽을 허무셨습니다. 연민어린 눈으로 바라보셨고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안 바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큰일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작은 일을 통해서도 그에 못지않은 섭리를 이끌어내십니다. 무수한 잘한 일들도 보시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소한 하나도 그 못지않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감실로 다갈 때 그분께서는 20세기 동안이나 그대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길》537)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기까지 주님께서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태 3,35)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잘 실행하는 주님의 착실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속되고 하찮은 일 앞에서 ‘할 일 없는’ 사람이 되는 용감한 선택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

이 성화에서 죄의 유혹은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을 한 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우는 주로 ‘간사함’, ‘배신’을 상징하며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배신으로 인한 ‘원죄’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림의 오른쪽 하단이자 하와의 왼쪽에 그려진 화려한 붉은 꽃은 ‘헛됨’을 의미하는데, 하느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배신과 욕망은 결국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성화
해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진다



이경애 안젤라 | 상담심리사

지난해 여름 저에게 정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온다고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죠. ‘반세기 무신론자’였던 남편이 세례성사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된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부부는 결혼 25주년을 맞았는데, 무엇보다 값진 결혼기념일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남편은 평소 매우 논리적인 사람으로 종교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종교는 호모 사피엔스가 만들어낸 일종의 가상공동체 개념’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잘하는 남편을 논쟁으로는 이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과연 남편과 함께 성당에 가는 날이 올까, 어쩌면 인생의 황혼 무렵에는 가능하려나 하며 반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을 설득하기는커녕 제 믿음조차 흔들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식구들 챙기기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미사에 빠지기 시작했고, 비틀거리던 신앙생활은 코로나를 핑계로 더욱 냉담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도 예비자 교리 받아 볼까?” 하고 물어온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기쁘던지요. 제가 신실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인 것도 아니고, 성당에 가자고 열심히 조른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성당에 나갈 결심을 했냐고 물으니, 몇 년 전 제가 ‘함께 성당에 다니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었답니다. 사실 그런 말을 했다가 물가물합니다. 큰 기대 없이 지나가는 소리로 한번 던져본 말이었을 텐데, 남편은 염두에 두고 있었나봅니다. 평소 좋아하던 장모님의 죽음을 겪으면서 남편의 심경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혼 25년 만에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남편은 학구파답게 성경부터 읽기 시작했고, 교리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나도 잘 모르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 뜨끔합니다. 미사, 기도, 성경 읽기... 무엇 하나 성실하지 않은

채 말만 신자라 자처했던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반성합니다. 남편은 저로 인해 신자의 길에 들어섰지만, 저는 남편의 세례 이후 하느님께 좀 더 가까워지고 신앙에 진심이 되어갑니다.

생각해보면 세례를 받은 이후 저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혼자서도 굳건히 믿음을 키워가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무엇을 하든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할 때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또한 힘이 되어 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좀 더 충실하게 해낼 수 있음을 그동안 생각지 못했습니다. 올봄부터는 성경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에 과연 꾸준히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교우분들과 봉사자님,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하니 재미납니다. 아,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편에 이어 저희 아들도 예비자 교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준비 과정을 잘 마치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은총을 받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가정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사랑의 선물을 이웃들과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낫
교리

모든 피조물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십니다.

찬미받으소서 88항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르 8,29)



이영제 요셉 신부 |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교수

너무 열심히 뛰어온 탓일까요? 제자들 모습이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갈릴래아 주변을 돌며 쉬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매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지만, 제자들도 인간인지라 밀려드는 피로는 막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 그분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갈릴래아 주변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정리하시며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시간을 마련하십니다.

카이사리아 필리피 마을을 향해 가던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평소 사람들의 시선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던 스승님께서 왜 갑자기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신 걸까? 지금 당신이 매우 유명해졌다는 것을 조금은 의식하고 계신 걸까? 그래서 그걸 확인받고 싶으신 걸까?’ 예수님의 의중이 무엇이었든, 이 말씀에 제자들은 신이 나서 대답합니다. ‘지금 갈릴래아 주변에서 스승님은 엄청 유명하십니다.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옛날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새롭게 보내신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님이 이토록 유명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사실 제자들은 어깨를 들먹이며 우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께

서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르코는 이 상황을 세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말씀에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나? 엄청난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잠깐, 그건 사람들 생각이지, 우리 생각은 아니지. 그렇다면 우리 스승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누구시지? 순간 그동안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 죄와 고통에 짓눌려 있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 분. 지금껏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알려주신 스승님. 베드로는 스승님의 눈빛, 몸짓 하나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 온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은 분명 나보다 앞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고백을 통해 전해집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했던 신앙 고백을 흉내 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고. 그분과 나누는 진정한 친교만이 앞으로 다가올 수난과 죽음 앞에서 그들을 굳건하게 해줄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이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솔로몬의 지혜 =잘 듣는 마음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지혜로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지혜’를 일컬어 인간 이성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영혼 전체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쳐, 사물의 이치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혜안(慧眼), 즉 지혜로운 눈을 갖도록 노력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저자들 역시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지혜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책은 잠언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서두에서 책의 목적이 “지혜와 교훈을 터득하고 예지의 말씀을 이해”(잠언 1,2)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지혜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지혜를 저버리지 마라. 그것이 너를 보호해 주리라.”(잠언 4,6) “지혜로운 이들은 교훈을 사랑하지만 빈정꾼은 꾸지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잠언 13,1) 잠언이 삶에 필요한 다양한 지혜로움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민중들 사이에서 전해지던 것들을 누군가 모아서 정리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의 저자는 이러한 전승의 기원을 솔로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잠언 1,1)

이처럼, 이스라엘의 전통은 솔로몬을 지혜로운 임금으로 여깁니다. 대표적으로,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여인사이에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준 솔로몬의 판결은 너무나도 유명하

지요.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들은, 솔로몬이 지니고 있던 이토록 위대한 지혜로움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솔로몬에 관한 열왕기의 묘사(1열왕 3,4-15)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직후에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갑니다. 번제물을 바친 날 밤에 하느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하느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해 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살펴본 대로, 솔로몬이 하느님께 청한 것은 ‘잘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은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묘사를 보면, 열왕기의 저자들은 솔로몬이 청한 ‘잘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시작’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느님의 목소리 그리고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지혜로운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움’은 비단 솔로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닐테지요. 하느님의 목소리에, 이웃의 목소리에 그리고 자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가며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보고...



정지원 바오로 신부 | 살레시오회(돈보스코 심리발달연구센터)

초등학교 3학년 윤정(가명)이는 수업 도중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집중을 못할 뿐 아니라 자꾸 참견하여 교사의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하고 친구들 학업도 방해하였습니다. 집에서도 자기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서 훈육 효과가 없다며 걱정 가득한 얼굴로 부모님이 센터를 찾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주의력 관련 검사를 한 결과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로 특정되었다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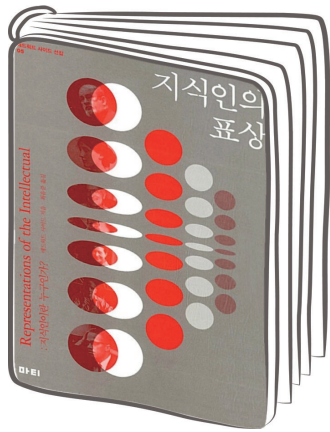
윤정이는 놀이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모님과 초기 면접을 한 다음, 윤정이의 놀이 주제(고속도로 상 교통사고, 죽음과 부상, 조급과 충동성 등등) 1~2회기 동안 탐색하신 놀이치료 선생님은 윤정이의 주의집중 약화와 산만함이 ‘인지적’인 부분보다 ‘정서적’인 측면과 더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지시적 지적, 합리적 지적과 훈육의 형태로 이뤄지는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윤정이의 부정적 정서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면담 과정에서 부모님께 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은 부끄러움과 아픔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약점과 노력할 부분을 잘 수용하시면서, 양육 방식과 태도를 바꾸고 윤정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놀이치료와 함께 아버지의 인지적 훈육이 정서적 교감과 감정 교류를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윤정이는 놀랄 만큼 안정되었습니다. 또, 산만함이 줄어들면서 책상에 앉아 있거나 선생님과 친구들을 기다려주는 힘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꼬장’도 덜 부리니 부모님들이 너무 행복

해하십니다.

‘IP’(Identified Patient, 식별된 환자, 증상 보유자, 지목된 사람)는 가족치료에서 주로 사용되는 임상 용어입니다. 가족 내에서 IP로 지목된 사람은 대체로 힘이 없는 구성원입니다. ‘윤정’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윤정이를 만나다 보니 정작 윤정이는 피해자에 가까웠습니다. 가족 내 부모의 불화, 소통의 부재, 가학적 양육 등 좋지 못한 가정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자주 그 탓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립니다.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문제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는 상담 센터에 데려옵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우리 가족들 중 누구를 환자로 식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가족 중 누구를 ‘문제’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에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지극히 정상인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동조하지 않으시며, 말만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 하십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과 청소년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이 문제가 심각하다며 아이를 환자로 지목하기 전에, 혹시 내 아이가 힘들어하는 데 나 자신이 영향을 준 것은 없는지 냉정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 원인을 해소하고 더 건강한 가족을 위해 내가 먼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부모이며 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서 '지식인의 표상'

아마추어 지식인, 신앙인의 사회적 사명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지식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리엔탈리즘’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사이드는 《지식인의 표상》이란 책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권력을 향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지식인은 자기 전문성이라는 상아탑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문제에서 약한 사람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지식인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식인에 대한 사이드의 관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사회적 사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이드에 따르면 권력에 진실을 말하는 지식인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약자들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권력을 가진 이들의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인은 “손쉬운 공식이나 미리 만들어진 진부한 생각들 혹은 권력이나 관습이 으레 말하고 행하는 것들을 거부”하기에 항상 고독과 영합 사이에 서게 됩니다. 게다가 그는 억압받는 이들 안에서도 승리자와 패배자가 나누어지는 현실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식인이 “집단적인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지식인은 ‘지적인 망명자’였습니다.

사이드에게 권력에 진실을 말하는 지식인의 사명을 위협하는 것은 권력 유착이나 상업주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영역 바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눈을 감는 ‘전문가주의’를 중대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대신 지식인이 ‘아마추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마추어라는 단어는

라틴어 amator(사랑하는 이)에서 나왔으니, 문자적 의미로 아마추어란 냉소주의나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관심과 애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마추어 지식인은 “이윤이나 보상에 휘둘리지 않으며 전문성에 묶이는 것을 거부하고 여러 경계와 장벽을 가로지르는 연결점을 만들어 더 큰 그림을 그리려는” 지식인입니다.

여기서 잠시 자문해 봅시다. 사이드가 그리는 지식인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 저에게는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유다에 대한 애틋한 사랑에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지만 이해받지 못하고 고독 속에 탄식하는 예레미야, 자신은 예언자 무리에 속한 적도 없는 한낱 농부이지만 하느님께 붙잡혔다는 아모스 등 구약성경의 예언자부터, 당대 종교 전문가에게 단죄받고 권력에 넘겨지는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회적 사명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공동선, 연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상기하면, 사이드의 지식인론은 우리 모두에게서 멀리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웃에 대한 애정과 염려 속에 ‘아마추어’로서 관여하고 연대하는 것은 사회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겠죠.

사이드는 세속적 지식인이었지만 자서전 첫머리에 12세기 수도승의 글을 인용하여 망명자로서 자기 삶을 그렸습니다. “고국이 달콤한 이는 초보자이고, 모든 땅이 고향처럼 여겨지는 이는 이미 강자이지만, 온 세상이 낯선 이는 완전한 자입니다.”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영명 축일 미사

6월 29일(토)은 교구장이신 정순택 대주교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축일 축하 미사는 6월 28일(금) 오전 11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9년 6월 15일 윤형중 마태오 신부(76세)
- 2007년 6월 12일 장덕범 바오로 신부(84세)
- 2008년 6월 13일 나상조 아우구스티노 신부(87세)
- 2010년 6월 15일 조순창 가시미로 신부(77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25일) 2차 헌금 및 9일 기도

1) 단식 모금 운동(2차 헌금)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며 6월 21일(금) 한 번의 단식을 하고, 이 단식을 통하여 모금된 성금을 6월 23일 주일미사에 2차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2) 9일 기도 봉헌(6월 17일~25일)

미사 전이나 후에 기도문(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함께 봉헌

첫째 날	6월 17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회심
둘째 날	6월 18일	상호 존중
셋째 날	6월 19일	평화의 일꾼
넷째 날	6월 20일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북향민)
다섯째 날	6월 21일	세계 정치 지도자
여섯째 날	6월 22일	남북교류협력
일곱째 날	6월 23일	과도한 군비경쟁 중단
여덟째 날	6월 24일	한반도 비핵화
아홉째 날	6월 25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교구청 알림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6월13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교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정록수 신부(과테말라 선교)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와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6월11일(화) 13시30분~16시30분
곳: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6월 유가족 월례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집전: 오석준 신부
때, 곳: 6월15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제주도 2박3일 성지순례 접수 안내

때: 11월12일(화)~14일(목)
곳: 제주교구 순례지(추자도 제외)
신청: 6월10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에서 선착순 접수 / 회비: 1인당 65만원 예상(항공, 숙소, 전영버스, 식사, 자료 포함)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향심기도 2박3일 심화피정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회비: 14만원
때: 6월14일(금) 17시~16일(일) 16시
지도: 이승구 신부 / 곳: 성바오로피정의집
문의: 010-4565-8898

제63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우리의 자구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때, 곳: 6월20일(목) 11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명동)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2024년 하반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모집

원서접수: 7월8일(월)~26일(금)
접수방법: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 요망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www.casm.co.kr) 성음악위원회

하반기	개강일정	2024년 8월31일 개강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교육과정	교회음악가자격증과정: 3학기 과정 / 주말반 운영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 중급 교회음악가자격증 수여 전례음악집중교육과정: 2학기 과정 / 주말반 운영 아카데미 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입시일정	원서접수→면접전형(실기)→합격자발표→등록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숙경 산마르코주열리전: 1전시실
푸른그림전: 2전시실
김재윤 홍수원 2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6월5일(수)~13일(목)

2024 토요 성모신심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 강연: 조창수 신부
내용: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때, 곳: 매주(토) 15시~16시, 가톨릭회관 205-2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영성 아카데미

2024 생명가치존중 세미나

주제: 가정에서의 영성적 대화와 소통방법
대상: 가톨릭신자 신청순 100명(무료)
때, 곳: 6월22일(토) 14시~17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명동) / 강사: 양승국 신부
문의: 02)777-2013 서울평단협 사무국

민족화해위원회

1) 1422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6월1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평양교구 진남포 본당
2) 2024 DMZ청년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대상: 만20세~39세 청년 40명
때, 곳: 8월29일(목)~9월1일(일) 연천·철원 접경지역
접수마감: 7월10일 / 회비: 10만원
문의: 02)753-0815(문자로신청: 010-4682-2412)

2024년 사목국 성서못자리 성서특강

주제: 루카 복음의 평화: '죄로부터의 자유'
때: 6월26일(수) 10시30분~15시20분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강의실(해화동)
강사: 박진수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접수: 5월14일(화) 10시부터,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접수(신청순 400명) / 회비: 4만원(점심식사 제공)
문의: 02)727-2379 사목국 성서못자리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고령)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파티마 성모님 발현 피정
내용: 켈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곳: 6월13일(목)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7층

ICPE Jesus 시그널 피정 4차
대상: 만 35세~45세 가톨릭 미혼 청년
때, 곳: 7월6일(토)~7일(일), 성 앵베르센터
문의(접수): 010-9271-9114 / 카카오톡 플친: ICPE

2024년 청년 DMZ 평화의 길
때: 6월29일(토)~30일(일) 1박2일 / 회비: 6만원
곳: 파주-연천(JSA성당 방문 포함) / 선착순 80명
문의: 031)941-2766(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매주(화) 6월11일 12시30분~16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강사: 박현민 신부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효상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7월19일(금)~22일(월)·8월16일(금)~19일(월)·9월20일(금)~23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성경 완독	6월21일(금)~29일(토), 7월26일(금)~8월3일(토)
하느님, 바람, 내힐링 피정	7월5일(금)~7일(일)
효소 단식	7월11일(목)~14일(일), 8월9일(목)~12일(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생태 순례	7월19일~21일, 9월1일~3일, 9월20일~22일
여름 특별 피정 (우도 해변 포함)	7월25일~28일, 8월2일~5일, 8월8일~10일, 8월14일~17일, 8월21일~23일
추지도 성지순례	9월7일~10일, 10월13일~16일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6월21일~23일, 7월19일~21일
엄마와 딸(미혼) 피정	7월6일~7일, 9월28일~29일
세월의 지혜영성 피정	7월15일~19일 / 65세 이상
영신수련 8일 피정	8월1일~10일(9박10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8월24일(토)~25일(일), 9월21일(토)~22일(일)
3박4일	6월27일(목)~30일(일), 7월18일(목)~21일(일)
8박9일	6월13일(목)~21일(금), 7월4일(목)~12일(금)
40일	10월4일(금)~11월12일(화)

두 성심의 일치 묵상 피정

때, 곳: 6월17일(월) 9시30분~13시, 가톨릭회관 7층
문의: 010-2724-4819 서울 마리아 학교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대회

대상: 전신자 누구나 / 피정비·중식 무료
강사: 구요비 주교, 송봉모 신부, 이창진 신부, 김태광 신부
때: 6월15일(토) 9시30분~17시30분 / 미사·안수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010-3310-882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3지구 매일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주제: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마르 9,29)
내용: 말씀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백준호 신부(프란치스코 수도회, 쪽방촌 봉사)
때, 곳: 6월19일(수) 12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 강당

예수회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이나시오 영성연구소)
곳: 예수회센터 / 문의(접수): 02)3276-7794
이메일: ciskorprov@gmail.com

- 1) 예수회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때: 7월26일(금)~30일(화)·8월1일(화)~10일(토) 4박5일
- 2) 일상생활 속의 영신수련**
때: 8월26일~12월16일 매주(월), 예수회센터
- 3) 무료 정기강좌: 6월13일(목) 14시**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의 꿈과 환시 / 홍기령 교수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피정·강좌

곳: 삼성동 / 문의(접수): 010-3845-3045
담당: 정규한 신부(예수회)
1) 기도따라하기 하루 피정(15명)
내용: 강의, 기도, 질의응답 / 회비: 3만원(점심 포함)
때: 매일 셋째주(수) 10시~16시 6월19일·7월17일
2) 생활기도수련원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10주 강좌
때: 매주(금) 13시30분~16시 / 내용: 이나시오 영신수련 강의 방법: 현장, Zoom, 녹화강의 병행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우도해변 포함** 7월12일~14일·7월20일~22일·7월25일~28일·8월1일~4일·8월6일~8일·8월10일~13일·8월24일~26일, 7월1일~4일(추지도 포함)·9월2일~4일·9월7일~9일·9월11일~14일(추)·9월21일~23일·9월26일~28일·10월1일~3일 /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분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예수님을 통한 관계치유 세미나(서울대교구 성령봉사회)
강의, 치유기도회, 율동, 찬양, 고해성사
때, 곳: 6월7일~7월26일 매주(금) 18시~22시(미사 21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500·504·651)
환승-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10-3242-6868

마르코(예수님 수의와 함께) 무료 강좌

때: 매주(목) 10시~12시(미사 포함)
곳: 성 바오로 수도회(서울시 강북구 송충동) / 문의·강의: 010-6287-9753 김길수 수사(성바오로수도회 영성센터)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음악원(주최, 신촌)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접수: 수시 가능 / '사이버성경학교' 검색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수업참여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수업내용: 검정고시·수능, 기타, 원어민영어회화, 토론·글쓰기, 사진, 한국사능력검정, 바리스타, 코딩 등 / 봉사자 모집: 검정고시, 수능학습지도, 코딩 수업 가능한 분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가톨릭성서모임·직장인을 위한 축복받은 성경읽기

그룹형 성경통독-혼자서 읽기 어려운 성경, 함께 읽어보세요 / 대상: 성경통독을 원하는 분
때: **레위기만** (월·화·수·일) 20시 비대면(7월경부터 시작), **루카복음서만** (월·화·수·일) 20시 비대면(7월경부터 시작) / 문의: 02)824-4363
접수: 가톨릭성서모임 홈페이지(biblemove.com)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4년 인물 명강

강사: 이동욱 신부 / 회비: 8만원(선착순 70명)
때, 곳: 7월3일~24일 매주(수) 4회·14시~16시(강의·13시20분(미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체칠리아홀)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7월3일	팜므 파탈, 유딧과 살로메
7월10일	우물가에서, 라헬과 사마리아 여인
7월17일	증언자, 타마르와 막달레나
7월24일	죄와 율후 앞에서, 하와와 마리아

제24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손흥민 토티넘, 서유럽투어)
사이판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

7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월)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 (고대·중세) / 현장만 가능	이진현 신부
(화)	영성과 심리의 통합 첫번째 길 불완전한 영혼의 영적 여정	최지원 수녀
(수)	구약성경 아카데미·시편 해설	주원준 박사
(수)	루트를 읽자	김민 신부
(목)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박혜원 강사

모집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첫모임: 6월10일(월) / 문의: 010-9836-8998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국악성가연구소
지도: 강수근 신부 / 문의: 010-2279-0255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자유곡 1곡 / 남성 환영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30대 가톨릭 신자 / www.logoschoir.org
활동: (일) 16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 010-3006-0810
오디션: 6월23일(일) 17시, 명동대성당
명동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pc버전)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18세~만 40세 남녀 가톨릭 신자
활동: (일) 12시 교중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오디션: 6월15일(토)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6월13일(목)까지 이메일 접수(명동성당 홈페이지
(PC버전) 단체 모집) / 문의: 010-3211-5195 (문자)

미사

새천년복음화학회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6월20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오푸스데이 설립자 성 호세마리아 축일 미사

주례: 박정우 신부 / 일상생활의 성화라는 가르
침에 관심이 있는 신자들을 환영합니다
때, 곳: 6월22일(토) 오전 9시, 도림동성당
문의: 02)727-2480(info.kr@opusdei.org)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 이사회 청년 월례 미사

대상: 이웃 사랑과 나눔에 관심있는 청년 신자
집전: 이원석 신부(청소년·청년 담당 영적 지도 사제)
때, 곳: 6월15일(토) 16시, 가톨릭회관 1층 101호
(소성당) / 문의: 02)778-4476 한국 이사회 사무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림미사 / 문의: 02)953-0613

주례: 권태문 신부(골롬반회) / 예수성심성일 미사
모임: 담당 곤잘로 신부(성소자,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때, 곳: 6월15일(토) 16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누구나 참석

서울고속버스터미널(준)성당 미사 / 문의: 02)535-6604

곳: 서울 고속터미널 경부선 10층(옥상공원 남산방향)
(화~금) 12시 (일) 11시·17시·21시
(토) 13시30분(토요 주일 미사)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커피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세곡동성당 글로리아 성가대 제2회 정기연주회

때, 곳: 6월15일(토) 19시, 세곡동성당 3층
연주곡: 비발디 글로리아 전 12곡 외 / 010-8229-7576

익산 성클라라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수도원을 철거하고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도움을 겸손되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문의: 010-6355-9782 박 레지나(상담자)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상담·검사: 우울·불안, 성격, 대인관계, 가족, 진로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서초구)
회비: 대학원 수련생 상담 1만원, 전문가 상담 8만원
문의: 02)3147-8814 / '가톨릭대학교 상담센터' 검색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2024년 한반도 평화음악제 '평화를 주소서'

때, 곳: 6월15일(토) 16시, 파주 참화과 속죄의 성당
내용: 전국 6개 가톨릭성가단체 평화기원 연주회
행사: 모니카교회음악원 / 전석 무료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주최: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전진상 영성센터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와인 인문학 산책 (6월 특강)	6월18일(화) 10시~12시 / 회비: 2만원 강사: 장홍(와인 인문학 산책 저자)
삼위일체 사랑을 나누는 불완전한 우리(영성 특강)	6월20일(목) 10시~13시 강사: 최지연 수녀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사별, 부부, 영성상담
심리학 박사 신부 직접 상담 / 문의: 010-9146-7654

떼제노래 작은 피정·주일 미사 / 문의: 02)744-0840

대상: 하느님을 갈망하는 모든 이, 청소년·청년 환영
때, 곳: 매일 세번째(토) 6월15일·7월20일·8월17일
16시~17시45분,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20) 성당

직원모집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편집·판매·영업·물류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재판 주방 근무자 모집

곳: 종로구, 중구 /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 근무자 0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
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6월23일(일)까지 우
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
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전농동성당 관리인 모집 / 문의: 02)2241-7841

인원: 1명(계약직) / 업무: 시설관리·방호·미화 등
전반적인 업무(필수: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성실하고 건강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우편·방문(우 02548,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9길 25(전농동) 전농동성당 사무실)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울대교구청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환경·창조보전운동에
소명의식이 투철한 분 / 분야: 환경사목 홍보·
교육 담당 교구사무원 1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
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6월23일(일)까지 우
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
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지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이 안젤로 신부(성소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6월15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6월15일(토) 15시	성북동 수도원(전잠로 9-6)	010-8573-0567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6월15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6월15일(토) 13시	아프리카잠비아선교후원회(가톨릭회관 526호)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3355-4997, 010-8669-6383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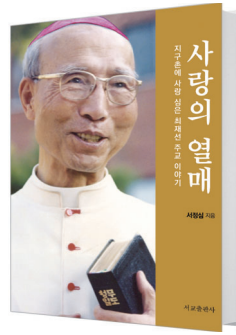
게재된
시간 검색

신간

나자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창훈 지음
성바오로 | 272쪽 | 2만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이 책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나자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며 이스라엘의 해당 성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성지가 이드복인 동시에 복음 말씀을 구체적인 사진과 정보와 더불어 생생하게 목상할 수 있도록 이끄는 영적 안내서이다.



신간

사랑의 열매
지구촌에 사랑 심은
최재선 주교 이야기

서정심 지음
서교출판사 | 240쪽 | 2만원
문의: 02)3142-1471

이 책은 저자(전 한국외방선교회·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장)의 자전적 신앙 에세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마르 16,15)는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살아온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 있다. 또한 구도자적 삶을 살아왔던 최재선 주교가 성인품에 오르기를 바라는 간절함 속에서 선교회 태동 과정 등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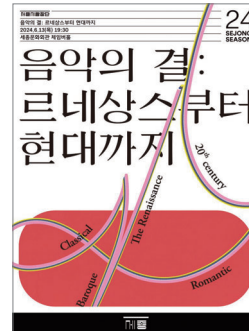


음악회

2024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수 음악회

때: 6월 21일(금) 오후 7시 30분
곳: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
무료 입장 / 문의: 02)393-2213

<2024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수 음악회>가 6월 21일 19시 30분, 종림동에 위치한 최양업홀에서 개최된다. 첼로 신호철, 하프시코드 장은경, 소프라노 장수민, 리코더 차미란 등 각 분야의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카데미 교수진의 심도있는 솔로 연주 및 고음악 듀오 연주부터 김희주 부원장이 함께하는 피아노 5중주까지 다양한 구성의 연주를 선사할 예정이다.



음악회

음악의 결: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

때, 곳: 6월 13일(목) 19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 / 입장료: 전석 5만원
문의: 02)399-1000 세종문화티켓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로 4명 50% 할인

합창곡으로 알아보는 <음악의 결: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가 6월 13일(목) 19시 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음악사의 흐름을 따라 합창곡의 특징과 변화를 경험하는 흥미로운 시간! 김진웅 아나운서의 해설과 하프시코드 스페셜리스트 조성연이 함께하는 매력적인 합창의 세계가 펼쳐진다.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 40주년, 124위 시복 10주년 기념 특별전

새벽빛을 여는 사람들

때, 곳: 5월 29일(수)~8월 18일(주) 9시 30분~17시 30분(월요일 휴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2 기획전시실
문의: 02)3147-2401 | 주최: 순교자현양위원회 | 주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천주교회의 순교자 중 124명을 복자로 선포했다. 우리 사회가 경험한 세 번의 시복식(1925, 1968, 2014)과 한 번의 시성식(1984)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의 불평등을 제거하여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킨 역사의 한 장면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순교자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를 이미 이루어진 사회로 만든 '새벽빛을 여는 사람들'이었다. 한 나라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문화, 종교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전시가 한국 근현대사 100년 안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시복·시성식의 의미를 바라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